

해병대 장교부터 웹소설 작가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모인 이유는 '기술'

- 경력·나이·국적 달라도 목표는 같다...2026학년도 신입생 5인의 이야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모였다. 2026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신입생 가운데 웹소설 작가, 해병대 장교, 결혼이민자, 해외 근로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이색 신입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2026학년도 입시를 마무리하며, 기술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는 신입생들의 사연을 공개했다.

생활고 겪던 웹소설 작가, '게임 개발자'로 장르 전환

네이버에서 '검은 머리 천재 피아니스트'를 연재하던 웹소설 작가 김현동(31) 씨는 올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하이테크 과정(증강현실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창작 수입의 불안정성을 직접 체감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진로를 모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 C언어, 3D 모델링, 유니티 엔진 등을 배우고 있다. 그는 "웹소설 작가로서 쌓은 스토리텔링 경험을 살려 게임 콘텐츠를 기획하는 개발자로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8년 차 해병대 장교, 전투복 벗고 'AI 산업안전' 전문가로

울산캠퍼스 하이테크과정(AI산업안전시스템과)에 입학한 구준영(31) 씨는 8년간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대위 출신이다. 구 씨는 군 복무 중 다양한 환경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경험하며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역 후 산업안전 분야로 진로를 전환했다. 구 씨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이제 산업 현장으로 이어가려 한다"라며, "AI와 데이터를 접목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골프장 캐디에서 '특수용접 전문가'로... 필드 위의 인생 상담

홀어머니 밑에서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온 전세환(28) 씨는 식당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4년간 골프장 캐디로 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연을 맺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의 조언을 계기로 평생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 올해 남인천캠퍼스 전문기술과정(특수용접설비과)에 입학했다. 그는 "기술을 배우며 부족했던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제 용접 자격(IWE)까지 취득해 세계 현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두 아이 엄마의 도전... 뷰티 전공 접고 '의료공학' 택한 몽골 이민자

원주캠퍼스 하이테크과정(의료공학과)에 입학한 나작남 할리온(36) 씨는 두 자녀를 둔 몽골 출신 결혼이민자다. 4년제 대학에서 뷰티디자인을 전공했으나 육아와 양립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 탓에 진로를 바꿨다. 남편 직장 동료(폴리텍 졸업생)의 추천으로 입학을 결심한 그는 낯선 전공 용어와 컴퓨터 실습, 육아까지 삼중고를 이겨내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할리온 씨는 "의료기기 인허가(RA) 자격을 취득해 취업한 뒤, 훗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를 고국 몽골에 수출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호주 광산 누비던 30대, 체계적 기술 습득을 위해 귀국

호주의 건설 현장과 광산에서 3년간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문정호(33) 씨는 전남캠퍼스 학위과정(에너지설비자동화과)에 입학했다. 해외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귀국을 결정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현재 학과 대표를 맡아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교생활에 적응 중이다. 문 씨는 "지금의 선택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인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폴리텍대학은 학력·나이·국적·경력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기술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직업교육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다채로운 배경의 신입생들이 한곳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이 가진 평등한 기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 ▲ 웹소설 작가인 김현동 씨가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검은 머리 천재 피아니스트 [독점]

★★★★★ 9.3 | 관심 71.2만 | 341 | 공유

연재중 | 원판 | 글 환동 | 출판사 JC미디어 | 전체 이용가

"내 연주를 들어" ..

이용안내 * 연재 주기 변경 공지

본 도서는 자유 연재로 연재됩니다. (기존: 월, 수, 금 00시 -> 변경: 자유연재 00시) ...

eBook 가격정보 25화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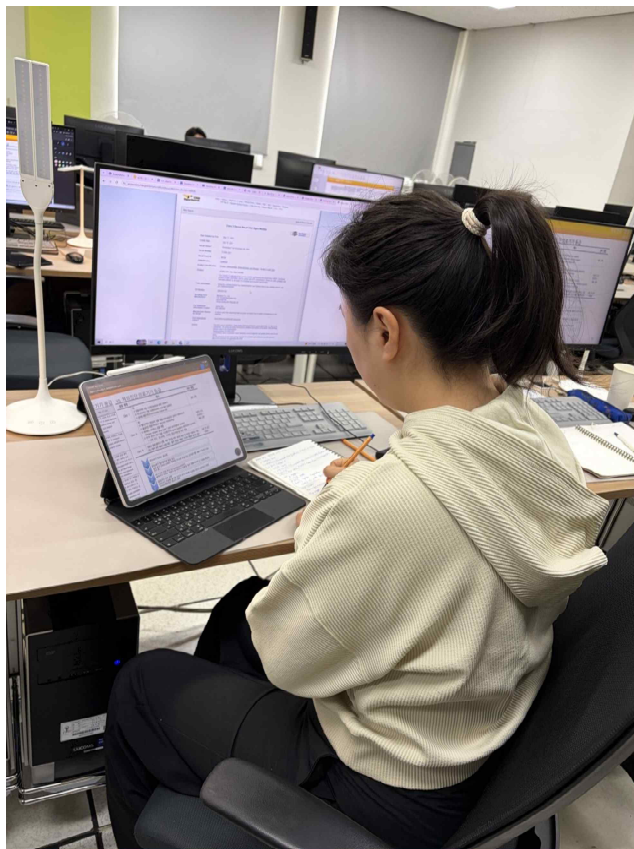
- ▲ 김현동 씨가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중인 웹소설 '검은 머리 천재 피아니스트'



- ▲ 해병대 장교 출신인 구준영 씨가 전기 제어반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



- ▲ (좌) 아이와 함께 행복한 모습에 몽골 이주민 나작남 할리온 씨
- ▲ (우) 2021년 뷰티디자인학과 재학 당시 뷰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작남 할리온 씨



- ▲ 2026년 원주캠퍼스에 입학한 이주민 나작남 할리온 씨 의료공학 이론 공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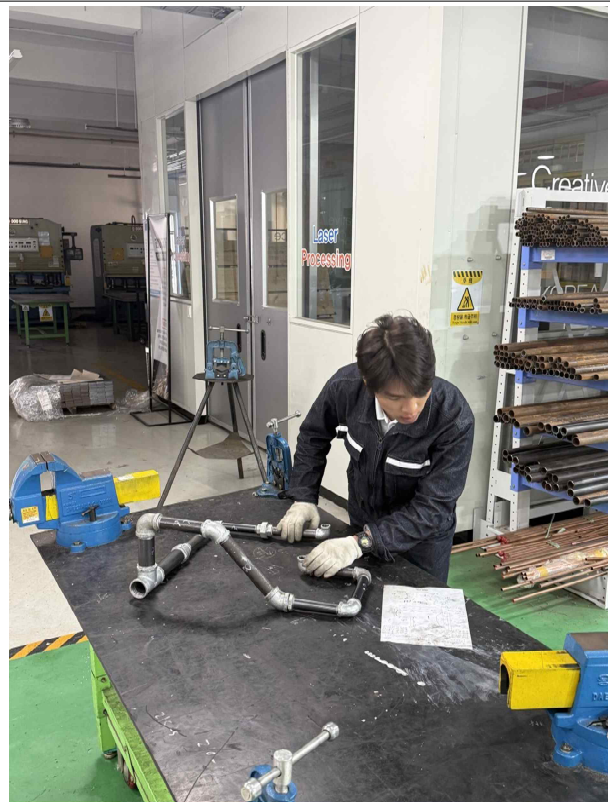
▲ 골프장 캐디였던 전세환 씨가 용접 실습 복장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 호주 citic pacific 광산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문정호 씨



▲ 호주 citic pacific 광산에서 문정호 씨가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남인천캠퍼스에 입학한 문정호 씨가 배관 설비 실습에 열중하고 있다.